

■ '농촌 교육 개혁 전도사' 별교고 박현순 교장

# “교사·학교 열정 있다면 농촌 교육 충분히 성공”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나타난 것처럼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는 심합니다. 그렇다고 농촌 교육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교사의 열정과 학교 지원 등이 잘 이루어진다면 농촌 교육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농촌 교육 개혁 전도사’로 통하는 박현순(74) 전남 사립중·고등학교 회장 겸 별교고 교장은 18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접한 뒤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장은 “농촌 교육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마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듯 호들갑을 떨고 있다”면서 “농촌 학교 중에서도 성공한 곳이 많은 만큼 이런 학교를 모델로 삼는다면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 도농 교육격차 극복 가능 지역사회가 뚝뚝 뭉쳐야

2005년부터 5년째 전남사립중·고교 회장을 맡고 있는 박 교장은 지난 57년 광주상업고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52년간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지역 원로 교육인. 박 교장은 이 가운데 25년을 농촌학교에서 헌신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엔 ‘제 28회 전남도 교육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안았다.

그는 농촌 교육이 낙후된 원인으로 ▲우수 인재 외부 유출 ▲낙후된 학교 시설과 교직원들의 근무 여건 ▲노령화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등을 꼽았다.

현재 그는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중인 별교고에서 농촌 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갖가지 방안을 실행 중이다.

대표적인 예가 외래 교사 초빙 제도다. 박 교장은 3년전인 2007년부터 매일 우수 학원강사를 초빙해 영·수 과목을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교사들을 자극하고 학생의 성적을 높이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 덕분에 별교고는 2007년



교육부의 전국 800여개 농어촌 고교 실행 평가에서 당당히 35위에 오르는 등 여느 명문고교 못지 않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학교 이미지도 크게 향상돼 관내 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을 막아내면서 100% 학생 충원율도 유지하고 있다.

별교고는 특히 ‘흡연, 왕따, 분실물, 폭력, 휴대폰’이 없는 ‘5무 운동’을 통해 지난 5년간 교내 사고가 단 한 건도 없는 청정학교로 선정되는 등 인성교육도 앞차다.

박 교장은 “농촌 교육은 안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학교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실력향상’이란 한가지 목표로 뚝뚝 뭉친다면 성적은 당연히 따라온다”며 농촌교육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전남 올 첫 저병원성 시

## 순천·곡성·보성 닭 2만마리 살처분

순천과 곡성, 보성 토종닭 농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환체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농림식품부와 전남도는 18일 순천 별량과 곡성 삼기·보성을 지역 토종닭 농장 3곳의 가검물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사 결과 모두 H5형 AI 환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H5형 AI환체는 AI에 감염된 개체의 체내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형성된 일종의 면역체다. H5형의 경우 고병원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환체만 발견돼

도 고병원성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하는 만큼 전남도는 이들 농장 3곳의 토종닭 2만2천여마리를 살처분하고 출입 통제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 방역을 벌였다.

살처분 규모는 ▲순천 농장 100마리 ▲곡성 농장 1천700마리 ▲보성 농장 1만8천300마리 등이다. 저병원성 AI의 경우 고병원성 바이러스(H5N1형)와 달리 감염돼도 특이 증상이 없고 섭취량 감소와 생산성 저하를 동반하는 호흡기성 질환이 나타나지만, 전염성이 낮고 폐사 등의 피해가 거의 없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 광주과기원 강길부 박사

## SCI 급 논문 23편 발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 석·박사 127명 학위 수여

광주과학기술원 졸업생들이 4년 박사과정에서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학술 논문을 대거 발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18일 오후관 대강당에서 2008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갖고 석사 105명, 박사 22명 등 127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선 생명과학과 강길부 박사(33·사진)의 연구성과가 단연 돋보였다. X-선 결정학을 이용한 단백질의 3차원 구조와 기능연구, 단백질 작용기전 분야가 전공인 강 박사는 국제학술지에 논문 23편을 등재했으며, 이 가운데 4편은 주(主)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강 박사의 연구는 단백질의



작용기전, 구조와 기능 관계를 밝혀 궁극적으로 생명현상을 규명하고 질병 치료제 개발에 밑거름이 됐다

는 평가다. 또, 이날 수여식에선 신소재 공학과 오민석 박사가 16편의 SCI 논문 가운데 11편을 주 저자로 올려 SCI 주저자 최다 발표자의 영예를 차지했다.

신소재 공학과 오민석·김연수 박사과 정보통신공학과 공 후아지 박사, 기전공학과 오광환·유미아라 니자르 박사, 생명과학과 바갈코트 바이살리 박사 등 6명의 졸업생이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학위 수여 박사 학위자 1인당 평균 논문 수는 5.96편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15분 해질 18시 18분 달돋이 03시 20분 달질 12시 50분

빗방울 소리 그리고 비가 오겠으며 밤부터 바람이 강해지겠다.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해남, 장흥, 순천, 영광, 진도, 진주, 남원, 옥산도 날씨 정보와 지도.

Table with 5 columns: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Rows for 서해 남부 앞바다, 남해 서부 앞바다.

주간 날씨 기상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최저/최고, 최저/최고 온도 정보.

# 광주·전남 내일까지 ‘단비’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 광주·전남은 남서쪽에서 접근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으며, 흐리고 비가 오겠다”고 18일 예보했다. 이번 비의 예상강수량은 5~30mm. 기상청은 곳에 따라 눈발이 내리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밤부터 목포와 함평 등 서해안 지방엔 바람이 거세지겠으며, 20일에는 광주·전남지역 전체에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 이번 비는 20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김형호기자 khh@

# 약대 입문시험 언어 등 5과목

한국약학대학협의회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제1회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의 시행계획을 18일 공고했다. 입문자격시험은 내년 하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며 시험 영역은 언어추론, 생물추론, 화학추론, 유기화학추론, 물리추론 등 5개로 구성된다. 응시하려면 대학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하거나(2011년 2월 수료 예정자

포함)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대학별로 요구하는 과목(선수과목)을 미리 이수해야 한다. 서울대 약대에 진학하려면 수학 3학년, 전남대는 수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에서 각 3학점, 조선대는 수학 3학점과 물리, 화학, 생물 중 2개 과목에서 각각 3학점 이상이 필요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국제보청기 광고.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슬로건.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무안 - 상해(방목) 직항!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무안 - 상해(방목) 직항! 중국東方航空, 광주MBC 문화항공, 광주·전남·북 유령여행사. 문의: 062-228-6070.